



뉴스 목차

1. 주요국 철강산업

- [중동] MENA 5개국 5월 DRI·HBI 생산 전년비 급감...호르무즈 해협 봉쇄 원인 | Kallanish, '26.06.23
- [중국] 철강 수요 완만한 장기 하락세 돌입...건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 | GMK, '26.06.23
- [글로벌] 친환경 철강 전환 프로젝트 대거 지연...정체된 탄소 감축에 업계 경고 | Reuters, '26.06.19
- [미국] 미국 주간 조강 생산량 소폭 감소...가동률 80.2% 기록하며 보합세 | Kallanish, '26.06.22

2. 철강 및 원자재 가격

- [철강]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 글로벌 철강 가격 최소 10% 하락 조정 전망 | SteelRadar, '26.06.21
- [철강] 바레인 철근 시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에 가격 하락세 전환...유통 재고 최소화 | Kallanish, '26.06.22
- [철강] 中 단오절 연휴 직후 철강 선물 가격 2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완만한 하락세 | Kallanish, '26.06.22
- [철강] 뉴코어, 열연 내수 가격 톤당 5달러 추가 인상... 연속 상승세 속 숨고르기 | Kallanish, '26.06.22
- [원자재] 6월 글로벌 철스크랩 가격 지역별 차별화 속 하락세 | GMK, '26.06.22
- [원자재] 글로벌 철광석 가격 수요 둔화 우려 속에 등락...하향 안정화 기조 뚜렷 | Kallanish, '26.06.22

3. 수요 산업

- [에너지] 미 재무부, 이란 석유 제재 60일간 한시적 유예 승인 | Mysteel, '26.06.23
- [인프라] 미 항만 인프라 200억 달러 투자 활기...공급망 불확실성 속 물동량 급증 | Industrial Info, '26.06.18
- [에너지] 미 재무부, 이란 석유 제재 60일간 한시적 유예 승인 | Mysteel, '26.06.23
- [건설] 중국 1~5월 부동산 투자 16.2% 급감... 건설 경기 침체 속 철강 수요 정체 | Kallanish, '26.06.22

1 주요국 철강산업

▶ [중동] MENA 5개국 5월 DRI·HBI 생산 전년비 급감...호르무즈 해협 봉쇄 원인 | Kallanish, '26.06.23

* 기사 제목 원문 : Mid-East DRI/HBI output rebounds sequentially, down sharply on-year

- ▶ **[원자재 부족]** 세계철강협회(Worldsteel)에 보고된 중동·북아프리카(MENA) 주요 5개국의 5월 직접환원철(DRI) 및 HBI 합산 생산량이 279만 톤을 기록함. 이는 직전 월 대비 35.2% 반등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9% 급감한 수치임. 올해 1~5월 누적 생산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5.1% 줄어든 1,298만 톤에 그쳐 중동 철강 업계의 전반적인 생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 **[해협 봉쇄 영향]** 이 같은 생산 급감은 최근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인해 핵심 원재료인 철광석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임.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철강사들이 육로 우회 등 대안 경로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 공장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극히 소량에 불과해 가동률을 정상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 ▶ **[국가별 생산 현황]** 최대 생산국인 이란은 전쟁 피해와 미국의 해협 봉쇄에 따른 수출 제한으로 전년비 61.6% 폭락한 150만 톤에 그쳤고, 사우디와 이집트도 하락세를 보임. 다만 연간 1,400만 톤 이상의 대규모 설비를 갖춘 알제리, 오만, UAE 등의 수치가 이번 통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실제 중동 권역의 전체 철강 원자재 생산 규모는 발표치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됨

▷ (원문) <https://www.kallanish.com/en/news/steel/market-reports/article-details/me-drihbi-output-rebounds-monthly-still-down-sharply-0626/>

▶ [중국] 철강 수요 완만한 장기 하락세 돌입... 건설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 | GMK, '26.06.23

* 기사 제목 원문 : The Chinese steel market is experiencing a prolonged downturn in demand - experts

- ▶ **[수요구조 전환]** 중국 철강 시장은 급격한 폭락이 아닌 장기적이고 완만한 수요 둔화 주기에 진입함. 부동산 위기로 인해 건설용 철근 수요가 약 8,300만 톤 급감했으나, 조선·신에너지 장비·첨단 제조 및 인프라 부문이 이 감소분을 상당 부분 흡수함. 이에 따라 전체 철강 수요는 고점(2020년) 대비 3.1% 감소에 그쳤으며, 기존 부동산·건설 중심에서 제조업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고도화된 모델로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
- ▶ **[생산감축 전망]** 중국광물자원그룹(CMRG)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잉 설비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9억 톤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함. 실제로 올해 1~5월 누적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4억 1,550만 톤, 압연강재 생산량은 1.5% 감소한 5억 9,300만 톤을 기록함. 나아가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의 공급 능력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글로벌 철강 시장 내 중국의 지배적 점유율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임
- ▶ **[수출장벽 심화]** 가격 하락과 원가 상승 여파로 내수 시장 악화 및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면서, 중국철강협회(CISA)는 회원사들에게 비수기 실제 주문량에 맞춘 유연한 감산과 보수를 권고하고 있음. 게다가 그간 내수 부진을 메워주던 탈출구였던 수출 전선마저 글로벌 주요 수입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 관세 장벽이 한층 높아지고,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라는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향후 중국 철강사들의 전방위적 압박이 심화될 예정임

▷ (원문) <https://gmcenter/en/news/the-chinese-steel-market-is-experiencing-a-prolonged-downturn-in-demand-experts/>

🔵 [글로벌] 친환경 철강 전환 프로젝트 대거 지연...정체된 탄소 감축에 업계 경고 | Reuters, '26.06.19

* 기사 제목 원문 : Steel industry sounds alarm over slow progress on green steel

- ▶ **[프로젝트 지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는 싱가포르 연례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계획된 친환경 철강(그린 스틸) 프로젝트의 약 절반이 이미 지연되고 있다고 경고함. 탈탄소화를 위해 총 1.5조 달러(약 2,300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은 200억 달러에 불과해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실정임. 자금 조달의 한계, 수요 부진, 탄소 배출을 대체할 그린 수소의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 철강 생산 톤당 탄소 배출 집약도는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시장 외면 요인]** 친환경 철강은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7~9%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의 핵심 과제이지만, 현재의 개발 속도로는 2030년 말까지 연간 생산량이 약 7,000만 톤에 불과해 전 세계 예상 생산량(20억 톤)의 극히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철강 소비재 기업과 바이어들이 비싼 친환경 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임.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단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요 인프라 사업에 친환경 철강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
- ▶ **[전통 고로 증설]** 한편 친환경 전환의 지연과 대조적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식인 전통적 고로(화석연료 기반)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전망에 따르면 이 두 지역에서 계획 중인 신규 고로 설비 규모는 전 세계 친환경 철강 프로젝트 전체 물량과 맞먹는 수준임. 이러한 전통 고로 설비들은 한 번 지으면 수명이 최대 40년에 달해, 향후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을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됨

▷ (원문)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steel-industry-sounds-alarm-over-slow-progress-green-steel-2026-06-19/>

🔵 [미국] 미국 주간 조강 생산량 소폭 감소... 가동률 80.2% 기록하며 보험세 | Kallanish, '26.06.22

* 기사 제목 원문 : Weekly US steel production slips

- ▶ **[생산 가동률]** 미국철강협회(AISI) 데이터에 따르면, 6월 20일로 마감된 일주일 동안 미국의 조강 생산량은 총 185만 1,000톤을 기록함. 이는 직전 주 생산량인 185만 4,000톤 대비 0.2% 소폭 감소한 수치임. 이에 따라 주간 설비 가동률 역시 직전 주의 80.3%에서 80.2%로 0.1%p 동반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보험세 흐름을 보임
- ▶ **[전년비교 누적]** 이번 주간 생산량은 가동률 79.8%로 179만 2,000톤을 기록했던 2025년 동기 대비해서는 3.3% 증가한 수준임. 아울러 2026년 현재까지의 연간 누적 조강 생산량은 총 4,440만 톤에 도달했으며, 올해 평균 설비 가동률은 78.6%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누적 생산량 4,183만 톤, 평균 가동률 76.8%에 머물렀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미국 철강 업황의 지표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줌
- ▶ **[지역별 현황]** 미국의 지역별 주간 조강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남부지역이 83만 3,000톤을 생산하며 가장 압도적인 물량으로 미국 전체 생산을 견인함. 이어 그레이트레이크 지역이 49만 6,000톤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서부 31만 8,000톤, 동북부 12만 9,000톤, 그리고 서부 지역이 7만 5,000톤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

▷ (원문) <https://www.kallanish.com/en/news/steel/market-reports/article-details/weekly-us-steel-production-lower-despite-northeast-jump-0626/>

2 철강 및 원자재 가격

▶ [철강]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 글로벌 철강 가격 최소 10% 하락 조정 전망 | SteelRadar, '26.06.21

* 기사 제목 원문 : ALI-DER: The reopening of Hormuz will bring at least a 10% price correction in steel prices

- ▶ [해협 개방 영향] 튀르키예 철강공급자협회(ALI-DER) 등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굳게 닫혀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향후 재개방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마비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전 세계 철강 제품 가격이 최소 10% 이상 하락 안정화되는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봄. 그간 해협 봉쇄로 인해 원자재 수급난과 물류비 폭등을 겪던 글로벌 철강 시장이 해상 통행 재개를 기점으로 빠르게 공급 과잉 및 비용 절감 흐름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임
- ▶ [원자재 수급 회복]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정상화되면 중동 지역,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철강사들을 극심한 가동을 저하로 몰고 갔던 철광석 펄릿 등 핵심 원재료의 공급망이 즉각 복원될 예정임. 원료 공급이 원활해지면 그동안 가동을 멈추거나 감산을 감행했던 대형 직접환원철(DRI) 및 HBI 공장들이 생산을 재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글로벌 철강 원자재 시장 전반의 누적된 공급 부족 증세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관측됨
- ▶ [시장 가격 둔화] 생산 정상화와 해상 물류비 안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철강재 가격 상승 모멘텀은 한풀 꺾이고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바이어들 역시 원가 절감에 따른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 해소가 단기적으로는 제품 마진을 압박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철강 시장을 정상화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 (원문) <https://www.steelradar.com/en/haber/ali-der-the-reopening-of-hormuz-will-bring-at-least-a-10-price-correction-in-steel-prices/>

▶ [철강] 바레인 철근 시장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감에 가격 하락세 전환..유통 재고 최소화 | Kallanish, '26.06.22

* 기사 제목 원문 : Bahrain rebar market anticipates decline on Hormuz reopening

- ▶ [가격 하락세 전환] 바레인 철근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조만간 재개방되어 마비되었던 원자재 공급망이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가격 하락 국면에 진입함. 향후 제품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현지 유통업체들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재고 수준을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낮게 유지함에 따라 시장 전반의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섰으며, 현지 유통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일부 압연업체들은 현금 결제 기준으로 톤당 가격을 기존 285 바레인 디나르(BHD)에서 275 바레인 디나르(약 731.4달러, 약 112만원)로 선제 인하함
- ▶ [주요사 공급 동향] 바레인 주요 철강사인 유니롤(Unirol)은 정기 보수 작업 완료를 앞두고 아직 공장 가동을 재개하지 않은 가운데, 인근 걸프협력회의(GCC) 주요 철강사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음. 카타르의 대형 철강사는 신용 거래(외상) 조건으로 톤당 750달러(약 116만원)에 제품을 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고,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 위치한 대형 철강사 역시 신용 거래 기준으로 톤당 2,700 사우디 리알(약 719.27달러, 약 111만원)이라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해 오퍼를 내놓으며 바레인 내수 가격을 압박하고 있음
- ▶ [소매 시장 흐름]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소매 시장에서도 신용 거래 조건에 따라 원산지별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바레인 국산 제품과 사우디아라비아산 철근은 톤당 293~298 바레인 디나르(약 149만원) 수준에서 공급가가 형성되어 비교적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는 반면, 물류 여건이 상이한 카타르산 철근은 이보다 약간 높은 톤당 300~305 바레인 디나르 선에서 소매가가 책정됨. 현지 관계자들은 해협 재개방이 공식화될 경우 수입재 유입이 더 늘어나 소매가 하락 폭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함

▷ (원문) <https://www.kallanish.com/en/news/steel/market-reports/article-details/bahrain-rebar-market-braces-for-decline-on-hormuz-0626/>

🔵 [철강] 中 단오절 연휴 직후 철강 선물 가격 2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완만한 하락세 | Kallanish, '26.06.22

* 기사 제목 원문 : Steel futures hit two-month low

▶ **[선물 가격 약세]** 중국의 단오절 연휴(19일~21일) 이후 첫 거래일인 월요일, 상해선물거래소(SHFE)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2026년 10월 인도분 철근 및 열연강판(HRC) 선물 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최근 2개월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시장 지표가 되는 철근 10월물 마감가는 톤당 3,127위안(약 462달러, 약 71만원)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4위안 소폭 하락했으며, 동일 만기의 열연 선물 계약 역시 톤당 3,338위안(약 76만원)으로 11위안 떨어지며 내수 시장의 부진한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함

▶ **[연휴 이후 상황]** 사흘간의 단오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철강 시장은 큰 돌발 변수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지나갔으나, 연휴가 끝나자마자 철강 제품 및 제철 원자재 가격 모두 연휴 전부터 이어지던 전형적인 하향 조정 추세를 그대로 이어받음. 다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추가적인 거시경제 악재나 돌발적인 악영향이 새로 유입되지 않은 덕분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내수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속도는 급락이 아닌 비교적 완만하고 느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별 가격 차이]** 지역별 실물 유통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면 경제가 발달한 연안 대도시들의 철강 가격은 비교적 단단하게 보합세를 유지한 반면, 월요일에 관측된 가격 하락세는 대부분 중국 중서부의 내륙 도시들을 중심으로 집중됨. 아울러 당일 가격 조정을 겪은 전국 도시들 중 약 절반가량은 낙폭이 톤당 20위안 이내의 소폭에 그쳐, 현지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투매보다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미세하게 가격을 조정하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음

▷ (원문) <https://www.kallanish.com/en/news/steel/market-reports/article-details/steel-futures-hit-two-month-low-0626/>

🔵 [철강] 뉴코어, 열연 내수 가격 톤당 5달러 추가 인상.. 연속 상승세 속 숨고르기 | Kallanish, '26.06.22

* 기사 제목 원문 : Nucor narrows weekly HRC price hike to \$5/st

▶ **[공식 가격 인상]** 미국 최대 철강사인 뉴코어(Nucor)가 자사 공표 열연강판(HRC) 가격을 톤당 5달러 추가 인상하여 1,130달러(약 174만원)로 상향 조정함. 이는 지난 3주 연속으로 매주 톤당 10달러씩 가파르게 올렸던 인상 기조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인상 폭을 줄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임. 뉴코어의 이번 조치와 발맞추어 합작 법인인 캘리포니아 스틸 인더스트리(CSI) 역시 동일하게 5달러를 인상한 톤당 1,180달러(약 182만원)를 기본 가격으로 제시하며 미주 내수 열연 가격의 동반 상승세를 유지함

▶ **[인도기한 및 상황]** 가격 인상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뉴코어의 공식 열연 제품 리드타임(주문 후 인도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3~5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업계에서는 뉴코어가 연속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도 인상 폭을 5달러로 최소화한 것을 두고, 미국 내 견조한 유통 수요를 지지하는 동시에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의 피로감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 시장 공급량과 리드타임을 면밀히 조율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음

▷ (원문) <https://www.kallanish.com/en/news/steel/market-reports/article-details/nucor-hikes-hrc-price-by-only-dollar5st/>

🔵 [원자재] 6월 글로벌 철스크랩 가격 지역별 차별화 속 하락세 | GMK, '26.06.22

* 기사 제목 원문 : Global scrap prices are falling in June

- ▶ **[튀르키예 중심 하락]** 6월 들어 글로벌 철스크랩(고철) 시장은 전방 산업인 완제품 시장 악화 여파로 지역별로 1~4% 수준의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그중 튀르키예가 가장 강력한 하방 압력 진원지로 작용함. 튀르키예 철스크랩 가격은 고금리와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 가격이 톤당 570~600달러까지 떨어지자 6월 들어 3.8% 급감한 톤당 392.8달러(약 60만원)를 기록함. 튀르키예 철강사들이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시아발 빌릿 가격 하락과 운임 약세가 겹치며 단기적으로 380~385달러선까지 추가 후퇴할 위험이 상존함
- ▶ **[유럽 미국 방어]** 반면 유럽(EU)과 미국 시장은 견조한 내수 균형과 타이트한 공급 덕분에 상대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며 튀르키예발 폭락을 방어하고 있음. 독일 고철 가격은 전월비 2% 상승한 톤당 312.5유로(공장 출고가, 약 55만원)로 보합세를 보였고, 이탈리아는 소폭 하락에 그침. 미국 역시 수출 부문은 아시아 수요 둔화로 약세를 보였으나 동부 연안은 견조한 고로 가동률과 여름철 자동차 공장 휴업에 따른 고철 공급 감소 우려가 가격을 지지하면서, 동부 수출 가격은 톤당 355.5달러(약 55만원)선에서 완만한 횡보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 ▶ **[중국 과잉 냉각]** 중국 철스크랩 시장은 활발했던 봄철 성수기를 지나 6월 들어 내수 가격이 1.3% 하락한 톤당 355.78달러, 수입재는 1.8% 하락한 402.5달러(약 61만원)를 기록하며 서서히 냉각기에 진입함. 수요 부진보다는 제철소로의 고철 유입량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과 세무 제도의 불확실성, 수집업체들의 자금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매 경쟁이 둔화된 결과임. 게다가 글로벌 수입 오퍼가가 400달러를 웃돌아 내수 가격과 괴리가 큰 탓에 수입 거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나, 가동률 유지로 추가 급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s://gmcenter/en/news/global-scrap-prices-are-falling-in-june/>

🔵 [원자재] 글로벌 철광석 가격 수요 둔화 우려 속에 등락...하향 안정화 기조 뚜렷 | Kallanish, '26.06.22

* 기사 제목 원문 : Iron ore fluctuates amid demand challenges

- ▶ **[지표 및 선물 약세]** 중국 단오절 연휴(19일~21일) 직후 첫 거래일인 월요일, 글로벌 해상 철광석 가격은 중국 시장 참여자들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거래 활동이 침체되며 미세한 등락 속 약보합세를 기록함. 칼라니쉬 청도항 수입 기준 철광석 지표는 61% 품위가 톤당 100.02달러로 0.1달러 소폭 후퇴했고, 62% 품위는 0.5달러 떨어진 99.69달러를 기록하며 100달러 선이 붕괴됨. 대련상품거래소(DCE)의 2026년 10월물 철광석 선물 가격 역시 톤당 742.5위안으로 전 거래일 대비 3.5위안 하락했으며, 당산 지역의 빌릿 가격도 10위안 떨어진 2,990위안(약 67만원)으로 주저앉음
- ▶ **[계절적 수요 부진]** 철광석 시장은 최근 수주일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원료탄 시장과 달리 완만한 하향 안정화 신호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음. 이는 전형적인 여름철 비수기 진입에 따른 계절적 수요 둔화가 시장 심리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임. 여기에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실제 철강 소비 능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향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하락 기대감이 한층 더 팽배해진 상황임
- ▶ **[물류 원가 하락]** 지정학적 긴장 완화 추세와 이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세 역시 철광석 가격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해상 화물 운임 시장을 지탱하던 정유 및 에너지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장거리 원자재 수송비 등 전체적인 물류 교통 원가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과거 철광석 가격을 강하게 지지해 주던 핵심 축 중 하나였던 높은 운임 비용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철광석 현물 및 선물 가격의 추가적인 가격 둔화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임

▷ (원문) <https://www.kallanish.com/en/news/steel/market-reports/article-details/iron-ore-fluctuates-amid-demand-challenges-0626/>

3 ▶ **수요 산업**

▶ **[에너지] 미 재무부, 이란 석유 제재 60일간 한시적 유예 승인 | Mysteel, '26.06.23**

* 기사 제목 원문 : 美国暂时解除对伊朗石油制裁

- ▶ **[제재유예 승인]** 미국 재무부는 스위스 비르겐스톡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 협상 타결에 따라, 이란산 석유의 생산·인도·판매에 대한 제재를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일반 허가를 공식 발급함.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의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미국의 다양한 행정 명령 및 규정으로 금지되었던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석유 파생 상품의 거래가 전면 허용되며 이번 유예 조치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21일까지임
- ▶ **[협상타결 성과]** 이번 조치는 양국이 체결한 이행각서(MOU)에 기반한 것으로, 이란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미국 내 수입까지 공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길을 막던 봉쇄가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묶여 있던 이란의 금융 자산 일부가 동결 해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국가 재건 및 개발 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 **[금융물류 면제]** 미국 정부는 향후 공식적으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까지 약속된 면제 허가를 지속적으로 갱신 및 발급할 방침임.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출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국제 은행 결제 시스템(금융 거래) 이용이 허용되며, 해상 운송에 필수적인 선박 보험 가입 및 수송선 배선 등 석유 거래와 관련된 전방위적 금융·물류 부가 서비스까지 합법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 (원문) <https://news.mysteel.com/a/26062307/1C95825CB9B38DB6.html>

▶ **[인프라] 미 항만 인프라 200억 달러 투자 합의..공급망 불확실성 속 물동량 급증 | Industrial Info, '26.06.18**

* 기사 제목 원문 : Construction at US cargo ports leads to \$20 billion in spending

- ▶ **[인프라 확충]** 현재 미국 화물 항만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프로젝트 규모는 총 200억 달러(약 31조원)에 달하며, 이 중 약 25%가 실제 착공에 들어감. 주요 사업으로는 미 육군공병단(USACE)이 주도하는 북부 오대호 연결 운하(수락스)의 대형 선박 통항 개선 사업(32억 달러 중 18억 달러 투입, 2030년 완공 예정)과 남부 앨라배마주 모빌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및 하역 크레인 확장 사업(1억 3,100만 달러, 2028년 완공 예정) 등이 활발히 추진 중임
- ▶ **[서부 관문개발]** 서부 연안에 위치한 코스베이항에서는 태평양 연안을 잇는 새로운 대형 화물 관문을 개척하기 위해 23억 달러 규모의 융합 물류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항만 내륙으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을 전면 개량해 입출항 화물을 100% 철도로 수송하고, 바닷길을 넓고 깊게 파내어 대형 컨테이너선이 상시 접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난 4월 연방 보조금을 확보해 2027년 착공을 앞두고 있음
- ▶ **[물동량 폭발]** 미국 전체 수입 컨테이너의 약 40%를 처리하는 서부 최대 거점인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5월 물동량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로스앤젤레스항은 수입 물량이 26% 증가했고, 롱비치항은 수입 물량이 40% 폭증함. 이는 미·중 무역 갈등과 중동 물류 마비 압박 속에서 현지 기업들이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서두른 결과로 분석됨

▷ (원문) <https://www.industrialinfo.com/news/article/construction-at-us-cargo-ports-leads-to-20-billion-in-spending-359169>

▶ [자동차] 인도 5월 자동차 소매 판매 폭염 악재에도 견조한 성장세...0톤차심륵차가 견인 | Kallanish, '26.06.19

* 기사 제목 원문 : India auto retail sales rise in May despite headwinds

- ▶ **[시장동향]** 인도 자동차딜러협회(FADA)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인도의 전체 자동차 소매 판매량은 총 208만 9,000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5.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성장은 현지의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고 선거철 유동성 제약이 겹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과임. 특히 서민들의 이동 수단인 이륵차(오토바이 등) 판매가 전년비 2.5% 증가했고, 삼륵차 시장이 20.1%나 폭증하면서 전체 승용·상용차 시장의 완만한 감소세를 메우고 인도 내수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함
- ▶ **[세부요인]** 차종별로 살펴보면 소형 화물차와 트랙터 등 농업·건설용 상용차 소매 판매는 역대급 폭염과 선거 활동 정체 여파로 전년비 각각 3.8%, 1%대 수준의 소폭 감소세를 보임. 반면 소형 승용차(SUV 등) 시장은 신차 출시 효과와 딜러사들의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에 힘입어 전년비 1.1% 소폭 상승하며 방어에 성공함. 현지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무더위로 가전이나 음료 등으로 소비가 쏠리는 와중에도, 물류 및 현장 이동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소매 시장의 지지 기반이 붕괴하지 않았다고 분석함
- ▶ **[향후전망]** 자동차딜러협회는 6월 인도 전역에 본격적인 우기 시즌이 시작되고 총선 결과 발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수 소비 심리가 한층 더 살아날 것으로 내다봄. 특히 농촌 지역의 강우량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 농업 소득 회복과 함께 차량 구매 대기 수요가 자극되어 이륵차와 상용차 중심의 가파른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차종의 과도한 딜러사 재고 물량 압박과 폭염 지속 여부는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관측임

▷ (원문) <https://www.kallanish.com/en/news/steel/market-reports/article-details/india-auto-retail-sales-rise-in-may-despite-headwinds-0626/>

▶ [건설] 중국 1~5월 부동산 투자 16.2% 급감... 건설 경기 침체 속 철강 수요 정체 | Kallanish, '26.06.22

* 기사 제목 원문 : China's January-May property investment plummets

- ▶ **[투자급감]** 중국 국가통계국(NBS)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올해 1~5월 누적 부동산 부문 투자액은 총 3조 400억 위안(약 4,490억 달러, 약 693조원)을 기록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2% 급감한 수치이며, 작년 12월의 일시적 충격을 제외하면 중국 부동산 투자가 하락세로 돌아선 2022년 4월 이후 역사상 가장 가파른 감소폭을 기록한 것임. 이로 인해 건설 시황에 민감한 전체 철강 내수 시장의 회복 고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임
- ▶ **[지표동향]** 투자 금액의 급격한 축소와 달리, 기타 주요 부동산 지표들은 전월 대비 비교적 완만한 보험세를 유지함. 특히 누적 주택 판매 매출의 감소율은 올해 1~2월 -20.2%에서 현재 -13.5%까지 대폭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개선(하락 폭 축소)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됨. 다만 올해 누적 주택 판매 면적 자체는 과거 2010년 동기 수준까지 후퇴해 전반적인 거래 규모가 과거 호황기 대비 크게 축소된 상태임
- ▶ **[수요전망]** 철강 업계에서 향후 건설용 강재(철근, 형강 등) 수요를 예측하는 가장 핵심 선행 지표인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의 감소율은 전년비 약 20%대 초반 수준을 기록함. 이는 지난 1년간 관측된 하락세의 연장선으로, 급격한 추가 붕괴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하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대변함.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가 단기에 회복되긴 어렵겠지만, 판매 매출 개선세가 지속된다면 연말을 기점으로 철강 수요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봄

▷ (원문) <https://www.kallanish.com/en/news/steel/market-reports/article-details/chinas-jan-may-property-investment-plummets-162percent-0626/>